

홀로된 노인의 자녀유대관계가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on the elderly's attitudes toward dating and remarriage

이영숙*

군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Yi, Yeong Sug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Kunsan Nat'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lderly's attitudes toward dating and remarriage, as well as how they are influenced by their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and to categorize the attitudes toward dating and remarriage, and examine each type's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Widowed elderly were positive towards dating and remarriage, and were more positive towards dating than towards remarriage. 2. The influence of the relationships with the elderly's children was bigger on remarriage than on dating. 3. Among the typology of attitudes, 'pro-dating/anti-remarriage' group had the most participants, and 'anti-dating/anti-remarriage' group had the least participants. 4. It is worth noting that 'anti-dating/pro-remarriage' group had distinctly differen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pro-dating/anti-remarriage' group, as was with "pro-dating/pro-remarriage" group and 'anti-dating/anti-remarriage' group. To elaborate, those who belonged to 'anti-dating/pro-remarriage' group were younger, mostly male, relatively highly educated, had weaker emotional ties with children, and got the least help. In contrast, the members of 'pro-dating/anti-remarriage' group were older, overwhelmingly female, and vast majority of them were lowly educated. Also, they had stronger emotional ties with the children, and got the most help. 'Anti-dating/anti-remarriage' group and 'pro-dating/pro-remarriage' group showed a contrast in the intensity of emotional ties with their children. The former was the strongest in emotional ties, and got a considerable amount of help, while the latter was weaker in emotional ties and got less help.

Keywords: widowed elderly, elderly dating, elderly remarriage, relationships with children

I. 문제의 제기

매우 빠르게 진행된 우리 사회 노령화는 노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관심은 주로 노인 복지 문제와 관계되는 것으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노인 복지 초기에는 주로 소득 등 물질적인 차원에 머물렀으나 이제는 외로움이나 소외감 등 정서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넓혀가고 있다. 2009년 65세 이상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Statistics Korea, 2010) 할 일 없음과 외로움, 소외감이 경제, 건강문제의 뒤를 잇는 문제로 등장하며, 홀로

* Corresponding Author: Yeong Sug Yi
Tel: 063- 469-4623, Fax: 063- 466-2085
Email: ysyi@kunsan.ac.kr

사는 독거노인에 있어서는 외로움과 소외감이 할 일없음 보다 앞선 순위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은 방향의 복지가 매우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노인의 외로움이나 소외감 등 노인의 심리적인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진 연구들은 자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전통적으로 노인의 복지가 가족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녀가 고령의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경제적 및 정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당연시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자녀 세대의 가치관의 변화가 크게 진행되었고, 노인 또한 과거와는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Cho, 2006) 성인자녀와 노인 모두 과거의 부모자녀와는 달라졌다. 최근 세대관계 연구에서 흔하게 지적되고 있는 쟁점의 하나로 정서적 연대의 정도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이나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지 않는 노인의 수가 60.6%에 이르는 것(Statistics Korea, 2010)은 모두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노후의 삶이 가족의 책임이라는 전통적인 규범과 가족 이외에는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사회적인 제도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현실적인 여건 하에서 홀로된 노인이 원하는 만족스런 독립적인 삶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을지가 문제이다. 이에 홀로된 노인들에게 배우자를 대신해 줄 만한 대안 마련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성교제와 재혼은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제기될 수 있다. 노인의 심리적복지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배우자 있는 노인이 배우자 없는 노인보다 소외감이나 우울감은 적고, 생활만족도 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Bae & Park, 2009; Seo & Kim, 1998) 배우자가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말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성교제나 재혼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성교제나 재혼을 한다는 선행연구들(Bae & Park, 2005; Choi & Yee, 2000)은 이러한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성교제나 재혼에 대한 노인의 욕구를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이성교제나 재혼이 노인에게도 필요함을 지적함으로써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기반을 이루었다. 그러나 노인의 이성교제나 재혼이 성인자녀에게 노후를 의지했던 과거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로 발생된 점을 감안하면, 이에 미치는 자녀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나 재혼에 미

치는 자녀유대관계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성교제와 재혼을 관련시키지 않은 채 각각에 대한 태도를 규명해 왔으며, 이성교제와 재혼을 관련지은 연구도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재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고만 밝혀주고 있다(Bae & Park, 2002). 그러나 재산문제로 인한 자녀들과의 마찰을 고려해 재혼을 하지 않고 그 외의 방법을 택하는 노인이 있으며(Hong, 2001; Segye-Ilbo, 2011), 장기적 의무가 부담이 되는 노인은 재혼보다 이성교제를 선호하기도 하는 현실(Carr, 2004)은 이들에 대한 노인들의 시각이 반드시 한 방향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성교제는 찬성하지만 재혼에 반대하는 집단이나 이성교제는 반대하지만 재혼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와 재혼을 함께 고려하여 이를 유형화하고 자녀유대관계 측면에서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관련문헌 고찰

1.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재혼에 대한 태도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은 상실감, 외로움, 경제적 문제, 역할 수행문제, 대인관계 문제 등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는데 이 중에서도 외로움 등 심리적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한다(Jun & Kim, 2000). 노인들의 이성교제는 홀로 있는 외로움을 해소시켜주며 생활만족도 등 주관적 삶의 질을 높여주는 등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Bae & Park, 2005; Bae, 2004; Choi & Yee, 2000; Jun, 2001).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노인들이 이성교제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으며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노인이 다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Chang, 2004; Jun, 1998; Lee, 1983)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과 사랑의 개념은 주로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생각되어왔기 때문에 성과 사랑이 개입된 이성교제의 주체를 노인이라고 여기는 것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 들어서면 역할상실, 신체적 쇠약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자녀를 비롯한 젊은이들과의 다른 가치관으로 인한 대화단절 등으로 인하여 이성 친구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는 훨씬 더 증가한다. 실제로 노인들

에게 노년기 이성교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Lee, 1983) 조사대상 노인의 대부분이 노년기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성과의 교제를 원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노인의 90.8%가 만족하고 고독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도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는 노인보다 외로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Jun, 2001). 더구나 홀로된 노인의 경우에는 심리적 지지자인 배우자를 잃게 되었음으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감이 더욱 심화되어 자연스럽게 같은 세대를 살아 온 대상에 대해 의지하고 싶은 욕구를 보다 강하게 갖기 때문에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또한 더욱 수용적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 태도를 조사한 결과, 홀로된 노인의 97%가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Choi, 1996)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이후에도 유사하게 지속되고 있다(Bae & Park, 2002). 최근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 노인의 외로움을 덜어주고자 노인의 결혼을 추진하거나 미팅을 주선하는 행사(The Kyunghyang Shinmun, 2011)들을 개최하여 노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성교제에 대한 노인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재혼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혼에 대한 연구 중 노인 재혼에 대한 것이 전체의 44%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Lee & Chun, 2009),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재혼건수도 증가 추세(Statistics Korea, 2010)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노인의 재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재혼과 이성교제가 노인의 심리적 고독을 해소하여주는 공통적 기능이 있지만 실제 이 둘에 대한 노인들의 태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이성교제와 재혼이 노후 심리적 고통 해소에 갖는 의미는 유사하지만 개인 또는 가족에게 주는 영향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성교제는 재혼보다 덜 심각하고 책임을 적게 가지며 장기적인 의무가 적은 관계라고 생각하므로(Carr, 2004) 재혼에 대해서는 이성교제보다 더 진지하게 임한다. 이러한 차이는 이성교제를 원하는 사람이 재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재혼을 원하는 사람이 이성교제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2.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태도와 관련변인

먼저, 홀로된 노인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 영향

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성, 연령, 경제수준 등을 관련변인으로 밝히고 있다. 이성교제에 대하여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며(Jun, 1998; Bae, 2002; 방애심, 1998; Chang, 2004), 연령이 낮을수록 이성교제에 대한 적극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Chang, 2004). 그러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인 것과는 달리 이성에 대한 관심에 연령은 유의미한 관련성은 없다(Bae, 2002). 이러한 결과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다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교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에 나온 차이이다. 경제적 능력과 이성교제의 관련성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즉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는 노인이 많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은 생활 자체의 부담 때문에 이성교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Chang, 2004).

이성교제와 관련된 변인 중 빠트릴 수 없는 변인이 자녀와의 관계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개인에게 가지는 의미는 각별하지만 다른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어 노년기에 이 의미는 더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노인과 성인자녀와의 관계는 노인의 삶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녀와의 좋은 관계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Ann, 2005; Bae & Park, 2009; Kim & Kim, 2000; Kim, 2004; Kwon & Cho, 2000)은 노인의 삶에 미치는 자녀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다.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는 노인에게 사회적 지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노인이 또 다른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하는 욕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자녀와의 유대감이 낮은 노인이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후의 부부관계가 열정보다는 친밀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일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러한 욕구가 해소된다면 따로 이런 낭만적 관계를 찾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Carr, 2004). 또한 노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사회적 지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관계가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목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부모자녀간의 사회적 지원이 과거 주로 노부모가 자녀로부터 받는 일방적인 관계에서 점차 상호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관계가 노인에게 주는 영향을 밝혀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Kim & Kim, 2000). 그러나 이성교제나 재혼에 대한 조사는 그다지 많지 않으며 이성교제에 대한 것은 더욱 적어(Carr, 2004)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어떻게 차이나는 지를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

다음에, 홀로된 노인의 재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조사한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서 밝힌 것과 유사한 결과를 밝히고 있다.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점(Bae, 2002; Bang, 1998; Chang, 2004; Jun, 1998)과 연령이 낮을수록 재혼에 대한 관심이 높고,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재혼에 대한 관심은 낮아진다고 하는 점(Chang, 2004)은 이성교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경제수준과 재혼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재혼에 관심을 갖는다는 결과(Bae, 2002)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고려한다는 결과(Bang, 1998)가 공존한다. 이는 재혼한 노인들을 조사하여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경제력이 재혼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나타났고 여자노인들은 상대방의 경제력을 주요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Bae & Park, 2005)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경제력은 남자노인의 재혼할 가능성을 높이는 변인인 것이다.

홀로된 노인의 재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변인으로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인의 삶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재혼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 자녀와의 관계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들은 사회관계망으로 비혈연집단을 선택하는 비율이 매우 낮는데 이는 노인의 삶에서 가족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원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Kim & Park, 2006). 노인들은 가족 중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를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 인식하는데 배우자를 상실한 노인에게 자녀가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노부모의 재혼에 대해 갖는 성인자녀들의 태도는 노인이 재혼에 대해 갖는 태도뿐 아니라 실제 재혼 결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노인의 이성교제나 재혼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노인이 이성교제나 재혼을 원하는 비율보다 실제로 이성교제나 재혼한 비율이 낮은 것이 노년기 사랑에 대해 규범적으로 금지하는 경향이나 본인이 더 이상 관계 설정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성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위의 체면이나 자녀들의 부정적 태도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Bae, 2002; Bang, 1998; Lee, 1983; Park, 2006; Yang, 2004). 마찬가지로 자녀 세대의 동의와 인정 및 지지가 노인의 재혼을 이루게 한 요인이며, 이는 노인의 새로운 결혼생활의 성공과 안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Seo & Kim, 1998). 이러한 부

모자녀관계의 상호의존관계를 세대의 결속이라고 정의하고 재혼욕구와 관련지어 연구한 결과, 구조적 결속도와 기능적 결속도가 높아질수록, 접촉정도와 애정적 유대가 낮을수록 홀로된 노인의 재혼욕구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Kim, 2004). 노인이 배우자로부터 충족시킬 욕구를 배우자대신 자녀에게 충족하려고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성교제나 재혼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성교제나 재혼을 더 필요로 하는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해 전북지역의 3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의 노인 480명을 대상으로 2010년 8.30~9.16일에 질문지를 배부하여 435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중 427부가 유효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성(26.9%)보다 여성(73.1%)이 많았다. 연령은 60대, 70대가 87.6%로 대부분이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329명(77.0%)으로 대다수이었으며, 학력은 초졸 이상이 64.9%로 가장 많았고 대졸 이상은 1.9%에 불과했다. 주관적으로 지각한 경제수준은 하 비율이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2. 측정도구

1) 이성교제 및 재혼에 대한 태도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는 홀로된 노인에게 '자신이 이성교제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단일 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재혼에 대한 태도도 이성교제를 묻는 방법과 동일하게 질문하였다. 이와 같은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다(6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1점)'의 6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인 답 3개와 부정적인 답 3개로 구성되어 중립적인 응답을 하는 것을 피하도록 구성하였다.

2) 자녀유대관계

<Table 1> Sample Description(n=427)

		n(%)			n(%)
Sex	Male	115(26.9)	Economic status	high	8(1.9)
	Female	312(73.1)		medium	136(31.9)
Age	60s	153(35.8)		low	283(66.3)
	70s	221(51.8)			
	80s	53(12.4)			
Religion	no	98(23.0)		Education	elementary school
	yes	329(77.0)	high school		142(33.3)
			college graduate or higher		8(1.9)

노부모-성인자녀 간 결속도 척도는 Cho(1990)가 사용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노인과의 유대관계의 측정은 특정 자녀에 국한된 관계를 측정하는 것은 지양하고 자녀 중 어떤 자녀와의 관계에서나 해당되면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17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4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별 고유치와 전체 변량중의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열거하면 애정적 유대, 도움받기, 접촉정도, 도움주기이며 이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각각 .90, .78, .68, .62이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PC-WIN 12.0을 이용하여 홀로된 노인이 갖고 있는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수용도의 경향과 그것에 미치는 변인의 차이를 파악해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x^2 , t 검증,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일원변량분석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하기 전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02~.40)와 Durbin-Watson 검정(이성교제 1.83, 재혼 1.81)을 실시하여 회귀분석에 문제가 없는지를 진단,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이성교제 및 재혼에 대한 태도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태도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이성교제에 대해서 6점 만점에 평균 3.56점, 재혼에

대해서 3.39점을 나타내어 약간 긍정적임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홀로된 노인이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해 약간 긍정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준다. 재혼과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볼 때 재혼보다는 이성교제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Attitude towards dating and remarriage

	n	M(SD)	t
Dating	115	3.56(1.45)	2.11*
Remarriage	312	3.39(1.64)	

* p<.05

2.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과 나이, 자녀유대관계 중 도움주기가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사회인구학적 요인만으로 구성한 모델의 설명량은 21.7%이고 자녀유대관계를 첨가하였을 때 설명력의 증가는 미미하여 총 설명량은 22.7%이다.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는 성(β=.35)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혼에 대한 태도의 경우, 모델 1에서

성과 나이가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유대 관계를 첨가한 분석에서는 사회인구학적변인 중 성, 자녀유대관계 중 접촉정도를 제외한 세 변인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 중 성이 가장 중요한 변인이며 그 다음으로 애정적 유대와 도움받기가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모델 1의 설명량은 11.9%이었으나 자녀유대관계를 첨가한 모델 2의 설명력은 17.7%에 이르러 자녀유대관계가 재혼태도에 대한 설명량을 5.8%나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성교제와 재혼 태도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통해 자녀유대관계의 영향력은 이성교제에 대해서보다 재혼에 대해 큼을 알 수 있다. 즉,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도움주기가 많을수록 긍정적이며, 재혼에 대해서는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와 도움받기가 적을수록, 그리고 도움주기가 많을수록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에서 이성교제와 재혼의 태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공통점으로 이성교제와 재혼 모두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긍정적이라는 점이다. 자녀에게 도움주기가 클수록 수용적이라는 점 또한 공통점이다.

차이점을 보면, 이성교제의 경우 나이가 젊을수록 이

성교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해 재혼의 경우에는 나이의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또한 자녀유대관계의 설명력에 있어서도 이성교제에 대한 것은 미미했으나 재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자녀유대관계의 변인에서도 차이는 나타났다는데 애정적 유대가 약하거나 도움받기가 적을수록 재혼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변인이 이성교제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3.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와 재혼 태도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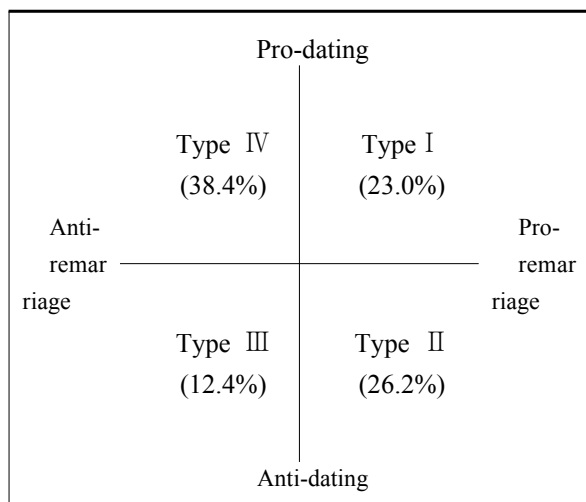
유형분류를 위해서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각각의 태도 점수를 구하였다. 이 점수가 평균 1-3점이면 반대, 평균 4-6점이면 찬성으로 분류하여 유형화를 시도한 결과를 도시하면 [Figure 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1:이성교제찬성-재혼찬성>, <집단2:이성교제반대-재혼찬성>, <집단3:이성교제반대-재혼반대>, <집단4:이성교제찬성-재혼반대> 네 집단으로 분류된다. 자료분석 결과 가장 많은 수의 노인들이 집단4에 속하며, 집단3에는 가장 적은 수의 노인들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Influences of the variables that affect single elderly's attitude towards dating relationship and remarriage.

Variables		Dating				Remarriage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b	β	b	β	b	β	b	β
Socio-demographic	Gender (Male=1)	.97	.35***	.95	.35***	.92	.29***	.72	.23***
	Age	-.04	-.21	-.03	-.17***	-.03	-.15**	-.01	-.07
	Economic Status	.00	.05	.00	.04	-.01	-.01	-.02	-.01
	Education	-.11	.08	-.11	-.07	-.05	-.03	-.02	-.01
Bonds with children	Affection			-.00	-.02			-.05	-.16**
	Contact Frequency			.00	.05			-.00	-.00
	Receiving help			-.03	-.06			-.10	-.16**
	Giving help			.01	.11**			.11	.12**
Adjusted R ² (%)		21.7		22.7		11.9		17.7	
F		30.44***		16.64***		15.43***		12.48***	

** p<.01

*** p<.001



[Figure 1] Typology of the elderly's dating relationship and remarriage

유형화된 네 집단이 가지는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 이다. 집단2(이성교제반대-재혼찬성)의 구성원은 나이가 젊으며 남성이 많으며 학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졸이상의 분포가 다른 세 집단에 비해 높다. 그리고 애정적유대가 가장 낮으며 도움받기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2와 대조되는 유형인 집단4(이성교제찬성-재혼반대)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70대 이상이 가장 많아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학력은 초졸 이하 노인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리고 애정적유대는 비교적 높으며 도움받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2와 정반대의 특성을 나타냈다. 한편, 이성교제와 재혼 모두에 대해 찬성하는 집단<집단1>과 반대하는 집단<집단3>도 대조적인 특성을 보였다. 즉 집단1과 집단3은 사회 인구학적 특성인 성, 나이, 학력 분포 등은 비교적 여성이 많고 70대 이상, 초졸 이하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많아 비슷하나, 집단3은 애정적 유대가 가장 높고 도움받기가 상당히 많은데 비해 집단1은 애정적유대

<Table 4> Type Characteristics

Type	Gender		Economic status		Education		Age	
	Male	Female	Low	Average or higher	Elementary school graduate	Middle school graduate or higher	60s	70s or higher
I	29.6	70.4	70.4	29.6	63.3	36.7	34.8	61.2
II	59.8	40.2	68.8	31.3	51.8	48.2	57.1	42.9
III	22.6	77.4	64.2	35.8	62.3	37.7	37.7	62.3
IV	4.3	95.7	62.8	37.2	75.6	24.4	18.9	81.1
X ²	105.22***		2.04		16.98***		43.01***	

Type	Affection		Contact frequency		Receiving help		Giving help	
	M(SD)	D	M(SD)	D	M(SD)	D	M(SD)	D
I		3.37(.90) A		2.76(.78) A		1.99(.48) A		1.68(.46)
II		3.17(.93) A		2.81(.67) A		1.88(.48) A		1.74(.48)
III		3.90(.77) B		3.09(.77) B		2.26(.51) B		1.73(.36)
IV		3.86(.68) B		2.96(.99)		2.28(.56) B		1.65(.53)
F		20.75***		2.58*		16.73**		.89

* p<.05 ** p<.01 *** p<.001

Type I : pro-dating/pro-remarriage
 Type II : anti-dating/pro-remarriage

Type III : anti-dating/anti-remarriage
 Type IV : pro-dating/anti-remarriage

와 도움받기가 비교적 적어 자녀유대관계 요인에서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태도 및 이에 미치는 자녀유대관계의 영향을 파악하고, 이성교제와 재혼 태도를 유형화하여 유형별 특성을 알아보고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65세 이상 홀로된 노인 4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한 뒤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홀로된 노인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냈으며, 재혼보다 이성교제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수용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유형화한 결과, 가장 많은 수의 노인들이 <이성교제찬성-재혼반대 집단>에 속하며, <이성교제반대-재혼반대>집단에 가장 적은 수의 노인들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노인의 재혼이 이성교제보다는 생활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이성교제를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는 본 결과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고려한 결과로 보여 주목할 만하다.

둘째,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자녀유대관계의 영향력은 이성교제에 대해서보다 재혼에 대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노인이 재혼보다 이성교제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첫째 결과와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노인이 이성교제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인데, 즉 법적 구속력이 있어 자녀와의 관계를 더 고려해야하는 재혼에 반해 이성교제는 자녀의 영향력은 적고 단지 교제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문제로만 여기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려는 무엇보다도 자녀를 포함한 주변 사람은 물론 노인들 자신도 이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정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은 이성교제와 재혼의 태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이성교제와 재혼 모두 수용적으로 여

기는 태도를 지니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인 것이다. 이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이성교제와 재혼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선행연구(Bae & Park, 2002; Bae, 2002)와도 일치한다. 배우자 사별 후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사회적 지지를 덜 받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Kim & Baik, 2003; Lim *et al.*, 2010)이 밝힌 바와 같이 여타의 사회적지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남성노인은 이성교제나 재혼 등의 방안이 여성노인보다 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노인복지담당자들은 특히 홀로된 남성노인을 위하여 이성교제나 재혼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 외에도 홀로되기 전의 남성노인들에게 가족,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성교제와 재혼 태도를 기준으로 한 집단 분류 결과, 분류된 네 집단에 소속된 노인들은 최하 12.4%에서 최고 38.4%까지 분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고려하기보다 노인 각 집단의 특성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집단을 고려해야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이유는 각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더욱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즉, <이성교제반대-재혼찬성 집단>과 <이성교제찬성-재혼반대 집단>, <이성교제와 재혼 모두 찬성하는 집단>과 <이성교제와 재혼 모두 반대하는 집단>은 대조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이성교제반대-재혼찬성 집단>의 구성원에 남성이 많으며 <이성교제찬성-재혼반대 집단>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결과는 여성노인은 이성교제를 선호하는 반면 남성노인은 재혼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Carr, 2004)와 같은 맥락이다. 즉 노후 이성교제나 재혼 등 낭만적 관계 형성에 대한 방법은 이전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여성노인은 결혼이 주는 가사, 서비스, 돌보기 등 장기간의 의무는 피하고 싶기 때문에(Carr, 2004) 재혼을 꺼리는 것이다. 또한 노인 재혼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조사한 결과 딸은 어머니의 재혼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것(Seo & Kim, 1998)과도 일맥상통한다. 아울러 이 결과는 사별, 이혼, 별거 등 결혼 해체는 남성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Lee, 2010) 결혼에서 더 이익을 얻는 집단인 남성이 재혼에 더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성교제와 재혼 모두 찬성하는 집단>과 <이성교제와 재혼 모두 반대하는 집단>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대체로 유사하나, 후자는 애정적유대가 가

장 높고 도움받기가 상당히 많은데 비해 전자는 애정적 유대와 도움받기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유대관계요인에서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 결과는 현재 어떠한 지원적 관계가 존재하면 이런 지원적 관계를 유지하고 심화시키는 것에 중요성을 두어 더 이상 다른 낭만적 관계를 피하려는 경향(Carr, 2004)이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보다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큰 미래 가족에서는 노인의 이성교제나 재혼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이기에 이런 유형의 집단이 더 증가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에 대한 태도는 다루지 못하였다. 동거하는 노인들의 경우에 자녀유대관계는 노인의 이성교제나 재혼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를 밝혀 비교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자녀유대관계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노인과 성인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본 연구에서 다른 양적 측면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는 양적 척도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를 위해 미묘한 심리적 차이까지 밝힐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대상은 임의적으로, 일부 지역에 국한하여 표집 되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요한다.

주제어 : 홀로된 노인, 노인이성교제, 노인재혼, 자녀유대관계

REFERENCES

Ann, K. S. (2005).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Social Support of Married Couples and Single Households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5, No. 1*, 1-19.

Bae, J. H. (2002). The Impact of Remarriage in Old Ag

e on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Bae, J. H. (2004). Factors Affecting Remarriage of the Elderly.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5, Fall*, 211-232.

Bae, N. R. & Park, C. S. (2002). The Effect of the Sexual and Heterosexual Relationship on the attitude toward Remarriage Single Elderly Peopl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7, No. 2*, 111-132.

Bae, N. R. & Park, C. S. (2005). A Study on the Remarriage of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0, No. 2*, 115-132.

Bae, N. R. & Park, C. S. (2009).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9, No. 2*, 761-779.

Bang, A. (1998). A Study on Widowed Elderly's View on Remarriage. Master's Thesis, Gangnam University.

Carr, D. (2004). The desire to date and remarry among older widows and widow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66, No. 4*, 1051-1068.

Chang, J. K. (2004). A Study of the Elderly's Attitudes to Dating in Later Lif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42, No. 12*, 31-54.

Cho, B. E. (1990). Intergenerational Family Solidarity and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Aged Parent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10*, 105-124.

Cho, S. N. (2006). Challenge of the Aging Society and a New Vision for the Elderly Support -The Welfare Paradigm of Integrated Generations Beyond the Blood Relations-.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Vol. 16*, 135-173.

Choi, B. R. (1996). A study on Attitude of Association with Different Sex by Aged-mainly on ageds at home reside in Daejeon-. Graduate School of Regional Science Hannam University.

Choi, Y. A. & Yee, C. D. (1996). Research: A Study on the Sexual Awareness and Remarriage of the Single Old.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 Association*, 34(6), 207-220.
- Choi, Y. A. & Yee, C. D. (2000). Study on Remarriage of Bereaved or Divorced Old people II,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5(2), 87-108.
- Hong, S. (2001). *An Introduction to Gerontology*. Hau.
- Jun, C. S. (1998). Intersexual Relationships & Remarriages of Widowed or Divorced Senior Citizens - A Case Study on Taegu Residents of Ages 60 and Up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Women's Studies Keimyung University.
- Jun, G. Y. & Kim, J. O. (2000). A Study on Self-Efficacy,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in the Bereaved Old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38, No. 1, 155-170.
- Jun, H. S. (2001). The Study on the Attitude of Sexual Desire and the Social Intercourse with Other Sex in Singled Elder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 Kim, C. S. & Kim, I. K. (2000). Patterns of Intergenerational Support Exchange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Par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0(2), 155-168.
- Kim, E. G. (2004). The effects of the solidarity between single elderly people and their adult children on the remarriag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 Kim, O. S. & Baik, S. H. (2003). Original Articles : The Relationships among Loneliness, Social Support, and Family Function in Elderly Korean. *J. Korean Acad. Nurs*, Vol. 33, No. 3, 425-432.
- Kim, S. G. (2004). A study for Raising the Quality of the Rural Old Aged Men's Liv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23, Spring, 179-202.
- Kim, Y. B. & Park, J. S. (2006). A Study on informal social network of elderly: focusing on non-kin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6, No. 2, 261-273.
- Kwon, J. D. & Cho, Y. J. (2000).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20, No. 1, 61-76.
- Lee, M. (2010). Assessment of the Elderly's Depression according to Marital Status : A Gender Difference Study.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44(4), 32-62.
- Lee, S. J. & Chun, Y. J. (2009). Analyses of Domestic Research Trend on Remarriage: published between 1996 and 2007.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3, No. 4, 173-195.
- Lee, Y. (1983). Sex and the Elderly. Modern Society and Senior Welfare. *Seoul Asan Social Welfare*, 172-228.
- Lim, Y. O., Park, J. Y., & Yoon, H. S. (2010). A Study on Perceived Social Support Trajectory among Widowed Elders and their Effect Factor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 50, 123-144.
- Park, Y. (2006). A Study on the Elderly's Remarriage and the Life After. *Hyo Studies*, 3, 155-179. Silver Couple, 7 January. Available at: <http://www.segye.com/Articles/News/Opinion/Article.asp?aid=20110107003349&cid=>
- Seo, B. S. & Kim, H. K. (1998). Articles : A Study on married adult children's perception of the elderly remarriag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 18, No. 1, 91-106.
- Statistics Korea. 2010 Social Survey.
- The Kyunghyang Shinmun. (2011). Incheon City, Arranging Elderly Marriages, 4 January. Available at: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1010413555355240&linkid=4&newssetid=1352>
- Yang, O. (2004). Comparison of Attitudes Regarding the Elderly's Remarriage between Generations. *Proceedings of the 2004 Fall Conference*,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 접수일 : 2012. 06. 05.
 | 수정완료일 : 2012. 06. 29.
 | 게재확정일 : 2012. 07. 09.